

# 腦와 心包에 관한 研究

동방대학원대학교 자연치유학과  
배오성\*

## A Study on the actual relationship between brain and SIMPO

Dept. of Naturalhealing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Bae Oh-Sung

On the importance of brain, Nei Ching has many descriptions, but it has been 3,000 years since the theory was issued that brain should be considered as a viscera. Nowadays scientists rush more studies on brain in international scientific field, Eastern medicine is to be required for the solution of it. This study is on the identical pathological mechanism between Simpo and brain based on my researches on senil dementia through continued reports last 15 years. A psychosis is caused by stress and abnormality of neurotransmitter on brain, for which is caused by seven emotions and pathological material on Simpo in Pyun Jahk Simseo, so it shows Simpo is brain clearly.

Therefore Simpo is no more intangible organ but brain, Samcho which has been debated similarly for thousands of years in the orient is no more intangible but spinal nerve system on central nerve with its structure and physiological points, and both two organs are composed of inside and outside relationship in Eastern medicine, I report hereby today.

key words : brain, Samcho, Nei Ching, Simpo.

### I . 緒 論

黃帝內經 五臟別論에 “黃帝가 물어 말씀하시기를 方士들이 腦髓를 臟이라 하기도 하고, 腸胃를 臟이라 하기도 하고, 뇌수나 腸胃를 腑라 하기도,”하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볼 때 내경 편집에 참여한 일부 학자들이 腦를 臟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sup>2)</sup>

內經이 저작된 것은 春秋시대 이후 漢代까지 수백 년에 걸쳐 다수 학자의 의견이 취합된 것이기 때문에<sup>1)</sup> 설명의 중복과 論說의 불일치가 보인다.

難經 38難에 “臟은 다섯이고 腑는 여섯인가? 답하기를 腑가 『여섯』인 것은 三焦가 있기 때문인데, 이름은 있지만 형태가 없다”고 하였다.

39難에 腑는 다섯이고 臟은 여섯인 것에 대하여는, 콩팥이 둘인데 왼쪽은 腎臟이요 오른쪽은 命門이기 때문에 여섯 臟이고, 三焦는 臟과 짝을

\* 交信著者 : 배오성, 東方大學院大學校 自然治愈學科,  
02)745-2141, bosbos777@hanmail.net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腑를 『다섯』으로 보기도 한다고 하였다.<sup>3,4)</sup>

藏象學은 인체 각 부분의 형태와 구조, 그리고 생리적 특성을 臟腑, 經絡, 官竅, 氣血津液, 體質 등 5개 부분으로 나누어 論한다.

고대에는 도살시킨 동물들과 전쟁에서 잡은 포로를 이용해 內臟 기관을 관찰하였는데, 이것이 해부학의 기원이었다. 지식적 욕구와 질병치료의 필요에 따라 인체 內臟의 관찰은 점차 증대되었다.

漢書 王莽傳에 “왕망이 적의 무리를 베고서 太醫 尙方과 노련한 백정을 시켜서 五臟을 측정하고 대죽으로 脈을 짚어가서 시작과 끝을 알아내고 병을 치료할 수 있겠다고 하였다”는 최초의 해부학 기록이 있다.

內經 시대에는 이미 시체 해부가 인체를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임을 자각하였다. 靈樞腸胃篇에서 식도와 腸의 比를 1 : 35로 기록한 것은 현대 해부학의 1 : 37과 근접한다. 이는 서양 최초의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의 인체해부보다 1500년 이상 앞선 것이다.<sup>10)</sup>

외과수술의 전개는 해부구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史記 『扁鵲倉公列傳』에는 俞跗라는 醫生이 외과 수술로 내장의 병을 치료하였다고 하며, 後漢의 華佗는 마취제 麻沸散을 개발하여 복부 수술을 하였고, 삼국지에 의하면 조조의 두통을 치료하려면 뇌 수술로 종양을 도려내야 한다고 診斷했다가 조조의 의심으로 잡혀 사형을 당하였다.

內經이 책으로 완성되기 전, 管子에 五臟 九竅가 있고, 膈, 骨, 腦, 革, 肉 등 五肉 중에 腦가 들어 있고, 鄒衍은 五德終始說에서 五行의 相克 원리를 처음으로 밝혔고, 呂氏春秋에 五臟六腑를 논했고<sup>10)</sup>, 五行의 상생 상극 원리를 확립한 漢의 公羊學 博士인 董仲舒는 春秋繁露에서 五臟, 五色, 五方, 五音 등 五行을 公式화하여<sup>27)</sup> 司馬遷<sup>28)</sup> 이후 교과서로 인식되었고, 馬王堆 漢墓에서 출토된 자료에 數種의 외과 수술법과 十一脈이 있다.

唐의 孫思邈은 千金方에서 五臟六腑의 크기,

길이, 폭, 용량 등을 기록하였고, 五時, 五方, 五臟, 五體 등을 五行의 원리대로 설명하였다.

明의 孫一奎는 命門과 心包 三焦를 연구하였고, 李時珍은 뇌가 元神의 腑라는 학설을 주장, 大腦가 정신 사유의 발원지가 됨을 논했다.

清代 王清任은 시체 해부를 중시하여 臟腑에 대한 기존의 그릇된 견해를 비판하여 心臟이 생각을 主宰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영혼과 기억이 腦에 있음을 주장하였다.<sup>10)</sup>

이상과 같이 腦에 대한 학설은 일부 발전이 있었으나 학문적 여건과 해부학의 한계에 의해 腦와 心包 그리고 三焦에 대한 실체는 규명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 II. 本論

### 1. 腦와 心包 및 三焦에 대한 학설

#### 1) 腦의 기능

內經 經脈篇에 腦의 발생에 대하여 精이 이루어지면 腦髓가 生한다고 하였고, 本神篇에 兩精이 서로 搏는 것을 神이라 한다 하고, 解精微論에 腎이 骨을 주관하니 腦는 腎精이 만드는 것이라 하였다. 五臟別論에 뇌는 髓, 骨, 脈, 膽, 女子胞와 더불어 奇恒의 府라 하였다.

#### 2) 腦의 병증

內經 海論에 “腦는 髓의 海인데 넉넉하면 몸이 경쾌하고 건강하며, 체력이 왕성하여 장수한다. 髓海가 부족하면 어지럽고 귀가 울리며, 정강이가 시리고 눈이 캄캄하고 사지가 무력해져 자꾸 눕기만 하려고 한다. 脈要精微論에는 머리를 기울이고 노려보며 정신을 빼앗긴다고 한다. 口問論에도 上氣가 부족하면 腦가 충만하지 못하여 귀가 울리며 힘없이 머리가 기울어지고 시야가 어두워진다.”고 하고, 風論에 “風氣가 風府穴 위로 돌면 腦風이 된다.”고 하였다.<sup>5,10)</sup>

#### 3) 心包

心包는 心包絡이라고도 하며, 심장의 외면을

감싸는 膜이며 심장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어 왔다. 內經 이래 心包의 위치와 형태에 관한 유형과 무형의 논란이 있어왔다.

靈樞 脹論에서는 心包는 膻中이며 心主의 宮城이라고 하였고, 明代 虞搏은 心包絡은 心을 싸는 膜이며, 그 외부를 싸기 때문에 心包絡이라 부른다고 하였다.<sup>20)</sup>

趙獻可는 心의 하부에 心包絡이 있으며 膻中이다, 모양은 仰盂같고 心이 그 가운데에 있다고 하였다. 張介賓은 心 외부를 적황색 脂膜이 싸고 있는 바로 그것이라고 하였다.<sup>10)</sup>

#### 4) 三焦

三焦는 상, 중, 하초의 통칭이며 六腑중의 하나이다. 三焦의 위치와 형태에 대해 難經 25難과 36難 등에서 “有名이나 無形”을 논한 후에 이후 본격적인 논쟁이 일기 시작하였다.

三焦를 無形으로 인식한 예는 『中藏經』, 『脈經』, 『千金方』, 『醫旨緒餘』 등이다. 유형으로 보는 주장은 그 형체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이며 대부분 구체적 형태를 찾지 못하였다.

明의 馬元臺는 『難經正義』에서 徐通, 陳無擇의 설을 인용하여 삼초가 右腎 하부의 손바닥만한 脂膜이라 하였고, 虞搏은 醫學正傳에서 “三焦는 體腔을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 腸胃를 포괄하는 총수인데 盲膜의 상부를 上焦, 盲膜 하부에서 배꼽의 상부를 中焦라 하며, 배꼽 하부를 下焦라 한다. 명칭이 있는데 부여받은 형체가 없겠는가. 그 체질은 脂膜이며, 체강의 내부에 있으면서 五臟六腑의 외부를 감싼다.”고 하였다.

張景岳은 “무릇 三이라 하는 것은 三才를 상징하니,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른바 焦란 火의 종류를 상징하며 적색과 陽에 속함이다. 인체에는 밖으로 皮毛에서 안으로 장부에 이르기까지 이름이 없는 것이 없으며 …… , 膜腔에 있으면서 상하 전체에 있는 커다란 주머니 같은 모양은 무엇인가 …… 內一層에 부착되어 있으면서 적색이고 모양은 六舍과 같으며, 모든 陽을 보호하는데 三焦가 아니고 무

엇이겠는가?”라고<sup>16)</sup> 하였다.

淸의 徐大椿도 三焦에 대해 “이미 이것을 腑라 하였으므로 저장하고 분비하는 기관임이 분명한데, 어찌서 形이 없다고 하는가?”라 하였다.<sup>10)</sup>

#### (1) 上焦의 위치와 기능

靈樞 營衛生會便에서 上焦는 胃의 上口에서 나오며 인후를 따라 상행하여 횡격막을 관통하여 흉중에 분포한다고 하였다. 決氣便에서 여기서 散布된 水穀의 精氣가 피부를 따듯이 하고 형체를 충실히 하며, 모발을 윤택하게 함이 안개와 이슬이 스며들 듯 하는데 이것을 氣라한다고 하였다. 이것을 “上焦는 안개(霧)와 같다”의 일구로 압축하였다.

#### (2) 中焦의 위치와 기능

營衛生會便에서 中焦의 氣 또한 胃에서 나오며 上焦의 氣를 이어서 나온다고 하였다. 횡격막의 하부에서 배꼽의 상부를 中焦로 보는데, 여기 소속된 장부는 脾, 胃, 肝, 膽 등인데, 肝을 下焦에 귀속시키는 견해도 많다.

中焦의 기능은 氣를 받아들이는 곳으로, 찌꺼기를 분별하여 津液을 찌고 精微를 화생시켜 肺脈으로 보낸다. 이로부터 血을 만들어 영양을 공급하므로 이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이것을 물거품(漚)와 같다고 하였다.

#### (3) 下焦의 위치와 기능

營衛生會便에 下焦는 위에서 내려보낸 水穀을 분별하여, 찌꺼기를 回腸으로 보내고 水液을 방광으로 보낸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배꼽의 하부를 下焦로 보며 陰部 및 大小腸, 腎, 膀胱, 生殖器 등의 臟腑를 포괄한다. 그래서 도랑(瀆)과 같다고 개괄하였다.

#### 5) 心包經과 三焦經

內經 經脈便에 “心主 手厥陰 心包絡의 脈은 흉중에서 일어나 心包에 속하고, 그 아래로 三焦에絡한다.”고 하였다. 天池혈에서 시작하여 中衝가

지 총 9혈이며, 병리진단적 기능으로서 심장질환과 정신질환 및 비뇨생식기 질환을 치료한다.

三焦經과는 表裏를 이루기 때문에 心包經에서 三焦의 질환을 치료할 수도 있다.

Felix Mann은 이를 circulation-sex라 명명하였으며 동시에 심장의 보호자라 하여 external protector of the heart라 하였다.

三焦經은 小指의 關衝穴에서 시작하여, 上肢 후면의 증앙을 거쳐, 눈썹 끝 絲竹空혈에 이르기 까지 총 23穴이다. 그 기능은 주로 三焦, 心臟, 정신질환, 순환기 및 비뇨생식기 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 心包經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滑伯仁은 “三焦란 水穀의 도로이며 氣의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여 三焦가 臟腑를 통제 관리하는 점을 암시하였다.

Felix Mann은 三焦와 心包가 臟腑에 대해 『보호적 기능』을 갖는다고 강조하였다.

尹吉榮은 上焦가 『신경전달』을, 中焦는 조혈, 下焦는 利水의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sup>8,10)</sup>

#### 6) 痰迷心竅

本草學이나 病理學에 자주 쓰이는 이 용어는 글자 그대로 痰이 心의 구멍을 미혹하게 한다는 뜻이다. 미혹을 설명하는데 가릴 폐(蔽)를 써서 『가린다』고 해석하고 있다. 『구멍』이라면 『막히거나 좁아질 때』 문제가 되는 데 여기서는 유독 『迷』를 써오고 있다. 心이 심장이라면 심장의 동맥이나 정맥 혹은 冠狀動脈 일부가 막히거나 좁아질 때 발병하는 『심장병 증후군』이라야 하는데, 사실 보면 모두 腦 神經係의 증상들이다. 즉, “神志가 맑지 않아 痴呆 亂語(언어장애), 認知障礙(意識朦朧, 人事不省, 嘔吐痰涎, 舌強不語)” 등이다.<sup>7)</sup> 따라서 導痰湯을 쓰고, 인사불성에는 蘇合香丸을 쓰고, 中風에는 牛黃清心元을 쓴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한 병리 기전이 ‘熱이 心包를 침범한 것(熱入心包)’인데 그 증상은 고열, 神昏, 譫語, 狂亂, 昏沉, 不語와 같은 의식 장애나 意識不明을 가리킨다.<sup>5,14,23)</sup>

그렇다면 心竅의 『心』은 『心包』가 되어야 마

땅하지 않겠는가?

#### 7) 心主

의학사상 불후의 名醫인 扁鵲은 難經을 저술하여, 內經에서 모호한 부분을 가려내 쟁론화 함으로써 학자의 사명을 보였다. 漢書藝文誌에는 『扁鵲外經』과 『扁鵲內經』도 저술하였다고 하는데 現存하지는 않는다.

25難에 “인체에 十二經이 있는데 五臟六腑를 합치면 11개뿐이니 그 하나는 어느 것인가? 그것은 手少陰心과 더불어 있는 『心主』의 別脈입니다. 心主와 더불어 있는 三焦와는 표리가 되고, 모두 有名이나 無形이니, 그리하여 十二經이 된 것입니다” 하였다. 이 출전은 靈樞 邪客편으로, “心이 상하면 神이 떠나고, 결국은 죽습니다. 고로 邪氣가 心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모두 心의 包絡에 있는 것입니다. 心包絡은 心主의 맥입니다”하여 包絡이 心主요, 心主가 包絡임을 內經 스스로가 밝히고 있지 않는가?

『心主』를 『心의 主人』, 혹은 『心을 主하는』이 아닌 『心이 主人』으로 중국에서부터 잘못 해석해 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靈樞 九針論에도 ‘少陽 心主 爲 表裏<sup>30)</sup>라 하여 手少陽 三焦와 手厥陰 心包의 표리관계를 설명하면서, “『心主』는 心包다”라는 것을 적시하고 있지 않는가?

心包가 심장을 주재 주관한다면, 심장의 上位 기관이다. 그 상위 기관이란 바로 심장을 다스리는 자율신경계의 중심인 『腦』밖에 다른 기관이 없지 않는가?

## 2. 腦와 氣

東洋醫學은 인체를 소우주라 하여, 우주와 마찬가지로 전일적 하나의 氣로 보았다. 인체는 곧 氣血이라 하였고, 氣와 상대 개념인 血도 氣가 主하는 것으로 파악, 氣는 인체를 다스린다고 하였다.<sup>11,17,18,19,21,22)</sup>

그렇다면 氣는 무엇인가? 氣의 본질을 규명해야 의학의 본질이 규명될 것이다. 인체 내에서는

폐가 氣를 主하고, 脾가 氣를 主한다는 것은 肺가 大氣를 받아들이고, 脾胃가 五穀의 五味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바, 기운 氣자가 氣(구름)와 米(곡식)를 합하여 만들어진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sup>11,18,22)</sup>

이것은 물질적 에너지로 만들어진 결과로서의 氣다.

그런데 『心主氣』라 하였다. 즉 마음이 氣를 주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마음이 氣의 주인이라면 정신계(心)가 물질계(氣)를 지배한다니, 상호 다른 두 세계는 어떻게 연결되어 만나며 관계를 이루는지 살펴보자.

### 1) 性命精

宇宙가 물질로만 되어 있다고 하는 물질론적 세계관은 우주가 죽어 있는 존재라고 간주하고 요소 환원주의적 방법으로 하드웨어만을 탐구하여 왔기 때문에 오늘날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주는 멈추어 있는 靜的인 존재가 아닌 전일적 생명체이며, 물질(機)과 에너지(氣), 그리고 보이지 않는 원리(理)가 항상 力動的으로 작용하면서 움직이는 동적 존재이다.<sup>6)</sup>

三一神誥에서 우주만물은 一氣에서 일어나며, 그 작용은 理, 氣, 機의 셋으로 나누어져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삼일신고에서 사람에게 온전하게 갖추어진 세 가지 三眞을 性·命·精이라 하였다. 여기서 망령된 세 가지 三妄이 나오는 바 心·氣·身이 그것이다.

心은 性에서 비롯되고, 氣는 命에서 비롯되고, 身은 精에서 비롯되어 어울림으로서 인체와 생명 현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東醫寶鑑에서 강조한 精·氣·神은 氣의 본질을 논하는데 중요한 개념인데<sup>12,17)</sup>, 고려시대 이암의 태백진훈에서는 三眞과 三妄 그리고 精氣神을 논하는 바, “神은 元神이니 性은 이를 낳고자 하고, 氣는 元氣니 命은 이를 알고자 하고, 精은 元精이니 精은 오직 이를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元神은 『頭腦』에 있고, 元氣는 『臟腑』에 있고 元精은 『丹穴』에 있다.”고 하였다.

현대과학적으로 볼 때 精은 공간 개념에, 氣는 시간 개념에, 神은 시공간 변화의 주체자로서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元神은 마음(心)으로서 『頭腦』라는 장소에서 元氣와 元精을 다스리고 또한 만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sup>6)</sup>

### 2) 의식과 氣

三一神誥에서 性·命·精과 心·氣·神을 해석하면서<sup>5)</sup> 마음은 性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性은 무엇인가? 性을 주로 연구하는 성리학은 朱子가 불교의 영향을 받아 유교를 재해석한 학문이다.

周敦頤의 太極設과 程頤의 理氣이원론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理가 먼저 있어야 氣와 만물이 생성 존재한다는 것으로, 조선에서 이 퇴계의 性學十圖를 낳았고, 당쟁으로 번진 격렬한 토론을 거쳐 理氣一元論으로까지 발전하였다. 19세기에는 주자학을 비판한 최한기에 이르러 우주가 ‘推測의 氣’와 ‘運化의 氣’일 뿐이라는 결론을<sup>6)</sup> 얻었으나, 이 역시 認識論과 現象論의 상대성적 確認일 뿐, 오히려 理氣二元論으로 후퇴한 듯 더 이상의 진전을 볼 수 없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自性, 本性, 性品, 佛性으로 표현하며, 이것을 論理的으로 밝히기 위해 唯識學을 세웠고, 유식 논리에 의해 인간의 의식 구조를 分析하여 밝혀놓고 있다.<sup>25)</sup>

唯識學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은 여덟 가지의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前 五識과 6識, 7識, 8識이 그것이다.<sup>26)</sup>

前 5識은 제 일식이 눈의 眼識, 제 이식이 귀의 耳識, 제 삼식이 코의 鼻識, 제 사식이 혀의 舌識, 제 오식이 몸의 身識이며, 제 육식은 意識, 제 칠식은 말나식(末那識), 제 팔식은 아뢰야식(阿賴耶識) 등이다.

인간의 의식을 크게 表層意識과 深層意識으로 나누면, 표층의식은 제 1식에서 제 6식까지이고, 심층의식은 제 7식에서 제 8식까지로 볼 수 있다.

제 7 末那識은 범어로 manas를 번역한 것이며, 집착하는 성격을 말하며, 아집의 근본이 되기 때

문에 자아의식, 염오의(染汚意), 思量識이라고도 불린다.

제 8 阿賴耶識은 범어 alaya를 음역한 것으로, 본식(本識), 장식(藏識)이라 하는 바, 모든 법에 의지할 바탕이 되는 근본 마음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감춘다(藏)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을 일으키는 種子를 감춘다는 의미이다. 그 종자의 작용에 의해서 현실 세계가 만들어지며, 逆으로 이것에서 모든 법을 창조하고자 하는 종자를 자기 중에 감추어간다고 하는 緣起의 관계이므로 그 원동력을 執藏이라고도 한다.<sup>24,25)</sup>

大乘起信論에서 馬鳴은 八識의 의미를 깨달음(覺)과 깨달음 전 단계(不覺)로 설명했다. 따라서 이 『8識』을 확연히 알기 위해선 『깨달음(覺)』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곧 氣를 다스린다<sup>53,59,66)</sup>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一切가 오로지 마음이요(一切唯心), 만법은 오로지 식(萬法唯識)”인 것이다.<sup>24,25)</sup>

현대의 量子 力學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은 물질의 기본인 素粒子에도 의식이 있다고 한다. 한 쌍의 電子와 反電子가 동일 지점에서, 전자가 동쪽으로 1억 광년을 날아가면 반전자는 서쪽으로 정확히 1억 광년을 초광속으로 날아간다고 한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모든 물질은 光速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인데 『초광속』이라면 물질계 밖의 정신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45,46)</sup>

또한 소립자의 의식이 관측자의 의식과 교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립자를 관측한다는 일은 소립자를 창조하는 일이라고도 한다. 관측자가 소립자를 파동으로 보면 파동으로 관측되고, 입자로 보면 입자로 관측되니, 이같은 관측자와의 交應은 관측자 의식과 소립자 의식이 交感한다는 의미이다.<sup>46)</sup> 이른바 宇我一體요 梵我一如가 과학으로 입증된 것이다.<sup>32,53,60)</sup>

김용옥은 氣哲學 散論에서 ‘氣는 物의 풀림(의지, 경향)’이라고 했다. 物理學의 관점에서 氣는 정보의 전달자이며, 정보는 意識이며, 정보는 에너지이다.

따라서 마음이 氣를 주관하며<sup>58)</sup>, 마음은 의식의 여러 단계를 거쳐서 형성되며, 이같은 작용이 이루어지는 곳이 『腦』의 신경 세포인 것이다. 혹은 자는 마음이란 腦 신경세포의 전기 화학 작용에 불과하다고 한다.<sup>49)</sup>

### 3) 동양의학에서 腦를 經絡이 대신한 이유

인체에서 氣는 경락을 타고 흐르는데, 腦에서 출발한 心氣, 폐에서 출발한 宗氣, 脾에서 출발한 元氣 등이 서로 어우러져 經絡뿐만 아니라 인체 주위의 空間에까지 확산, 여러 겹으로 둘러진 氣의 場을 형성한다. 氣의 場이 형성되면 뇌신경을 경과하지 않고도 자극이 공간을 자유롭게 전달된다.<sup>32,61)</sup> 또한 모든 經穴에 대한 鍼灸 등 자극은 腦를 거치는 것이 확인되었다.<sup>54-57)</sup>

조장희는 膀胱經의 至陰 혈을 刺針하면 뇌 후두엽의 시신경 영역이 즉각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fMRI로 검사하여 발표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sup>57)</sup> 여기서 膀胱經絡 부위 足神經과 視神經 상호간의 신경 생리적 관계는 밝혀진 바가 없었다. 十二經絡과 奇經八脈 모두가 신경 기능을 지배하거나 代行하고 있기 때문에, 臨床 상 특별한 要求 사항이 부재했었다. 중국에서 침술 마취가 성립된 것도 경락이 중추신경계를 지배하는 기전을 활용하였고 또 입증한 것이다.

인도 요가에서는 인간의 바이오에너지 중심을 차크라로 설명하고 있다.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인 차크라는 ‘회오리바람과 같이 회전하는 수레바퀴’를 뜻한다. 인도에서는 연꽃(lotus)이라는 말로도 사용하는데, 투시능력을 가진 사람 눈에는 차크라가 연꽃과 같은 모양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레바퀴처럼 돌면서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차크라는 에테르체 표면에 존재하며 꽃받침 모양의 오목한 부분에 바이오에너지가 집중된다고 한다. 모두 일곱 개가 있는데 아래쪽부터 회음, 비장, 배꼽, 심장, 목, 이마 그리고 정수리 부위이다. 任脈의 下丹田, 中丹田, 上丹田의 세 부위와도 일치한다.<sup>61)</sup>

근래에 발달한 量子醫學에서는 인체가 일곱 층의 에너지 場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첫번째는 肉體(p. hysical body), 둘째는 생명력을 가진 氣體(etheric body), 셋째 층은 感情體(astral body), 감정체의 한 층 위를 精神體(mental body)라 하는데 이를 다시 本能的(instinctive), 知的(intellectual), 靈的(sp. iritual)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보다 더 上位에 있는 것이 靈魂인데 이것을 因果體(causal body) 혹은 靈體(sp. iritual body)로 부르고 있다.<sup>64,66)</sup>

이 일곱 개의 제일층 肉體(p. hysical body)로부터 차례로 신체를 감싸고 氣層을 이루고 있어 맨 마지막 因果體(causal body)가 최종적으로 보호막과 같은 構造를 이루고 있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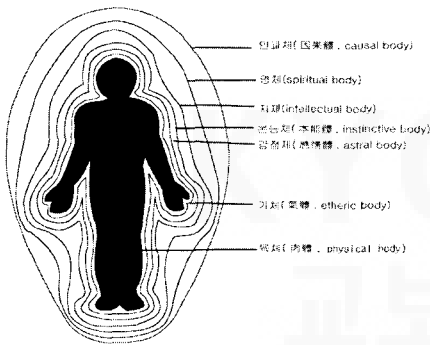


fig. 1 인체의 일곱 층의 에너지 場

보이지 않는 이 여러 개의 氣層이 설명상式 氣탐사법<sup>32,60)</sup>으로 확인될 수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사람마다 氣層의 크기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fig. 2)

성별/ 연령	氣體 (Etheric body)	감정체 (Astral body)	因果體 (causal body)
1.男 (51세)	3.0cm	20.0cm	41.0cm
2.男 (51세)	5.0cm	15.0cm	41.0cm
3.男 (35세)	2.0cm	10.0cm	26.0cm
4.男 (35세)	4.0cm	16.0cm	36.5cm

5.男 (63세)	3.0cm	12.5cm	34.0cm
6.女 (41세)	3.5cm	11.5cm	22.0cm
7.女 (50세)	3.5cm	16.0cm	29.5cm
8.女 (59세)	6.0cm	20.0cm	53.0cm
9.女 (10세)	5.0cm	14.5cm	70.0cm

육체로부터 인과체 까지가 어떤 이는 34 cm인 데 어떤 이는 70cm로 측정되고 있다. 이처럼 氣의 場은 뇌와 신체를 공간에서 상호 연결하며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0년 건강의 조건에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외에 ‘靈的 건강’을 추가하여 발표하였는데, 98년 처음 상정되었을 때, 한국이나 일본 등 동양의 氣문화권에서 오히려 반대가 심하여 결의안이 늦어졌다니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Ⅲ. 考 察

1. 老子 道德經에 “道가 一을 낳고, 一은 二를, 二는 三을, 三은 만물을 낳는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一은 氣이다.<sup>30)</sup>

性理學의 理氣論에서도 ‘理先後氣’라 하여 理가 氣를 주관한다 하였다.

동양의학에서는 마음이 氣를 주관한다고 하여 心主氣라 하였고<sup>12,58,59)</sup>, 불교에서는 마음의 구조를 8개의 意識으로 분석, 本性을 다스리는 것이 제8의 意識이며 여기서 일어난 『깨달음』이 氣를 다스린다<sup>59)</sup>고 밝혔고, 우리 민족의 고전 삼일신고 태백진혼에서는 性을 낳는 것이 元神이며, 元神은 『頭腦』에 있다고 밝혔다.

인도 요가에서는 바이오에너지가 일곱 개의 차크라에 집중된다고 하였고<sup>61)</sup>, 量子의학에서는 인체가 일곱 층의 에너지 場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量子力學에서는 意識은 정보이고, 氣는 정보 전달자로서 『상호 關係』이며, 상보성의 원리 즉, 소립자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임을 밝혀 놓았다.<sup>63)</sup>

바이체커는 존재의 본질은 에너지이며, 정보는 에너지라고 하였다.<sup>45,46)</sup>

여기서 道, 理, 心, 의식, 元神, 차크라, 氣層, 情報는 모두 동일 개념이며, 인체에서 출발점은 '腦'이다.<sup>53-55)</sup>

2. 難經 66難에 三焦의 氣를 『原氣』라 하며, 原이라 한 것은 존칭이라 하였는데, 형체도 없는 일개 腑에 대해 '존칭'을 쓴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것은 숨어서 다른 五臟과 五腑를 주관, 주재, 지배하는 『中樞神經』이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31難에는 三焦가 氣의 큰길(氣街)에 있다 하여 일반적 經絡과 그 용량을 구별하였고, 38難, 39難에는 五臟과 짝이 없다 하여 三焦를 뺀 『五腑』만을 부르기도 하며, 아예 『外腑』 혹은 『孤府』로 불렀는데, 척수신경은 체강의 外部인 척추에서 내부의 五臟과 五腑를 주관함과 바로 일치하고 있다.

馬元臺는 『腎 아래 脂膜이 있고 흰 두 맥(二白脈)이 여기서 나와 척추를 끼고 뇌로 올라 관통하니, 바로 三焦다.』<sup>18)</sup>라고 척수 신경을 본 그대로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 '三焦가 體腔을 가리키며, 腸胃를 포괄하고, 五臟六腑를 외부에서 감싸는 總司'라<sup>13)</sup> 한 것과, 張景岳이 "膜腔의 주위와 상하 전체를 싸는 膜의 內 一層에 부착되어 있다"고 한 것은 현대의 신경해부학에 "신경의 分枝인 종사(terminal filum)는 실모양으로 骨膜에 강하게 부착되어 있다"고<sup>37)</sup> 한 설명과 그대로 一致한다. 이것은 內臟 신경의 통로와 위치를 근사하게 묘사한 중세기 동양의학의 해부 연구의 학술적 결과이나, 당시 해부학의 한계상 그 미세한 신경 분지를 완전히 찾아내지 못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학창 시절 해부학 실습실에서 신경조직 시간이 되면 칼라 도록을 보면서 머리칼 같은 신경조직을 찾는데, 그 분지가 여기저기 筋膜 속에 숨어서 보이지 않아, 시체실에서 포르말린 냄새에 눈물 흘리며 집에도 못가고 오럴 테스트에 통과할 때까지 밤을 지새우던 일이 생각난다.

따라서 三焦는 脊髓와 그 신경 분지(branch)이며, 脊髓(三焦)의 上下 경계는 제1경(頸) 신경의

후근 상단이며, 아래로 제3腰椎의 수준에 이르고 볼 수 있다.<sup>37,38)</sup>

3. 25難에 心包를 『心主』로 적시하고도(心主與三焦 爲表裏), 이를 『心の 主』가 아닌 『心이 主』로 잘못 해석해놓고 있으니, 心包가 심낭이라 하여 p. ericardium이니, 심장 하부의 혈관이니, 脂膜이니 암중 모색을 하고 있다. 우리도 문제지만 중국에서는 지난 3000년간 漢文字를 잘못 해석해왔으니 그 잘못이 작지 않다.

『難經入門』 153 쪽 25 難 본문 중에 "手少陰-與-心主別脈, 心主-與-三焦爲表裏"를 王念孫이 校注하기를 "與는 謂와 같다, 접속사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sup>4)</sup> 앞의 문장은 『手少陰心』과 『心主』가 더불어 있는 즉, 심포를 말하고 있으니, 뒤의 문장에서 『心主』와 『三焦』가 表裏다 라는 뜻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면 "與"는 "더불어" 혹은 "-와"의 뜻이 분명한데도, 이를 "謂"라 주장하고 있다. 심포가 心을 主한다 했을 때 心보다 上位적 기관을 五臟 중에서 찾을 수가 없었으니 "心은 心主를 『이른다(謂)』"라고 왜곡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방법으로 해석하면 心包가 아닌 『心과 三焦가 表裏』이며, 心은 곧 三焦를 『이른다』가 되지 않는가?

靈樞 邪客편에 모든 諸邪가 심장을 침범하는 것은 사실은 心包絡에 가기 때문에 심포락은 곧 『心主』라고 이미 밝혀 놓고 있지 않았던가?

扁鵲心書에도 정신분열증인 風狂을 七情과 六慾이 心包絡을 손상했거나 風邪가 침범하여 발병한다고 하였으니<sup>9)</sup>, 心包絡은 곧 腦를 말한 것이며, 현대정신의학에서도 이것이 腦신경 조직에 있어 스트레스(七情)와 도파민 등 신경전달물질(neurotransmitter)의 이상이 원인이라고 한다.<sup>28,52)</sup>

이같은 학설의 오류를 자각한 학자들이 있었는 바, 高麗 이암은 태백진훈에서 元神이 頭腦에 거처한다고 하였고,<sup>65)</sup> 明 이시진은 본초강목 辛荳 條에서 腦가 元神의 府라 하여 腦와 정신작용의 관계를 강조했고,<sup>15)</sup> 淸의 汪昂

은 本草備要에서 사람의 기억은 모두 腦에 있다고 하였다. 본초학자인 두 분이 뇌의 실체를 강조한 것은 本草學이 實事求是를 중시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후 王淸任은 先代의 인식을 기초로 하여 腦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명민한 기능을 갖고 있고, 두 눈이 실과 같이 뇌와 연결되어 있어 눈으로 본 物象은 腦로 들어가며, 두 귀가 뇌로 통하므로 청취된 소리는 뇌로 들어가며, 코의 향기나 악취도 뇌로 들어간다.”하여 진실보 된 연구를 피력하였다.

더구나 그는 심장이 思慮를 주관한다(心主思)는 기존의 定說을 부정하고 『腦가 思慮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적시했다.<sup>8)</sup>

따라서 이제까지 정신의 집(精神之所舍)이 心臟이라는 것은 기실 『腦』인 것이며, 심장을 주관하는 心主는 心包이니, 君主의 官은 心包며, 元神의 거처인 心包는 곧 『腦』인 것이다.

해부학에 의하면 硬膜, 蜘蛛膜, 軟膜 등 腦는 세 개의 包膜에 싸여 있고, 大腦 變연계 주변은 內包(internal cap. sule), 外包(external capsule), 그리고 最外包(extreme capsule)로 구성되어 있다.<sup>37,38)</sup>

뇌와 척수 신경은 서로 연결되어 電氣的 化學의 대사작용을 하고 있으니, 臟腑論적으로 훌륭한 표리관계를 이룬다.

『腎이 腦髓를 生한다』는 것은 신경생리상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HpA axis ; 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과 일치하고 있다. 인간에 있어 副腎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주요 내분비선이다.

자율신경계는 시상하부-뇌하수체 호르몬의 한 표적기관인 부신 수질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부신수질은 사실상 교감신경계의 일부이다. 교감신경은 부신수질의 크로마핀 세포에 아세틸콜린(Ach)을 방출, 이 세포로 하여금 Norepinephrine과 Epinephrine을 방출하게 한다.<sup>33,36)</sup>

그리하여 부신 수질과 교감신경절은 相互 보

완적으로 작용하며, 동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서로 보강한다.<sup>40)</sup>

命門에 대한 해석도 부신과 교감신경의 상호 구조와 기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4. 五行 배속은 心包와 三焦가 모두 火의 臟腑로 알려져 있다.<sup>8,10,17,20)</sup>

그런데 형태가 없는 臟腑에 기능과 속성이 온전히 파악되어 왔겠는가?

개념적 기능을 파악해서 활용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뿐,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 이런 연유에서 실체의 파악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心包와 三焦가 腦와 脊髓神經으로 밝혀진다면 기존 학설을 다시 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腦臟과 脊髓腑는 신경계이므로 신경 조직의 전기적 생리 작용을 보면 그 속성이 五行의 『火』가 타당하다. 그런데 다른 臟腑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 발견되는데, 하나의 臟器에서 두 부분이 나뉘어져 서로 相反되는 기능을 보이는 것이 여타의 五臟에서는 없는 일이다.

예를 들면 뇌는 左腦와 右腦로 나뉘어져 각각 신체의 우측과 좌측을 담당하고 있고 좌뇌는 언어, 논리, 계산, 추리, 분석 등 수학적 작용을 하는데 비해, 우뇌는 음률, 직관, 상상, 정서, 총괄 등 예술적 기능이 있어 陰陽적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sup>47,62)</sup>

중추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어져 서로 길항작용을 하는 것이<sup>40)</sup> 陰陽의 相反 작용과 같다. 또한 뇌하수체를 비롯하여 시상하부, 송과체 등에서 각종 다양한 호르몬의 분비 기능과 하루 500~600ml의 뇌수액을 생산하는 것은<sup>33,40)</sup> 신장의 精과 水의 작용이므로 五行 상 『水』이다.

따라서 腦臟과 脊髓腑는 전기 생리적 『火』와 호르몬 분비적 『水』가 동시에 해당하는 五行상 『水火』 雙性的 臟腑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腦臟과 脊髓腑(心包-三焦)를 따라 『水升火降』이 전기 화학적으로 創發하게 된다.

5. 이렇게 보면 그동안 해석이 어려웠던 本神편의 “兩精이 상박(相搏)하는 것을 神이라 한다.”는 『兩精』이 바로 『水와 火』의 精으로 명확해질 수 있다. 물과 불이 서로 부딪치게 되면 빛과 수증기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빛은 『意識』을, 수증기는 『感情』을 만들어 내는 腦신경의 電氣化學的 작용을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 IV. 結 論

이상과 같은 研究에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지난 3000년간 무형의 臟腑로 간주된 心包와 三焦는 해부학적인 腦와 脊髓 神經係를 이르는 것으로 思料된다.
2. 따라서 五臟六腑는 心包臟이 추가된 六臟六腑로 정정되어야 하며, 그 결과 十二經絡과는 예외 없이 일치하게 된다. 또한 腦臟은 藏而不瀉, 三焦腑는 瀉而不藏의 기능이 있어 일반적 臟腑의 特性과도 일치한다.
3. 뇌- 心包臟과 척수-三焦腑는 둘 다 五行 상 『水火』 雙性的 臟과 腑에 속하는 것이 마땅함으로 사료된다.
4. 腦는 인체에서 氣를 다스리는 根源이며, 이 기능을 道, 理, 心, 元神, 차크라, 第八識(깨달음), 情報(66)67) 등으로 불려왔고, 우주 素粒子的 意識과는 全一的 統一場을 이룬다.<sup>53)</sup>
5. 따라서 生體場인 氣場은 의식의 지배를 받으므로, 향후 『意識과 氣』에 대한 연구는 초근 이론 등 자연과학적 연구<sup>53)66)67)</sup>가 우선이 되어야 함이 명백하다
6. 李濟馬 선생의 四象醫學도 五臟 六腑 상 『心을 精神의 中心』으로 본 假說 下에 성립된 것이므로,

氣와 精神의 중심이 腦 - 心包臟으로 訂正된 『六臟六腑 체계』에서는 새로운 수정 보완이 필요함으로 思料된다.

#### 參 考 文 獻

1. 홍원식, 中國醫學史,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4, pp. 25-48
2. 박찬국 홍원식 역, 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경희대출판국, 1998, pp. 198-200
3. 吳損村, 難經本義, 臺南市: 중화민국 70년, pp. 63-126
4. 최승훈, 難經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4, pp. 153-303
5. 전국한대의대심계내과학교실, 동의심계내과학, 서울: 서원당, 1995, pp. 34-52
6. 최한기 손병욱 역, 氣學, 서울: 통나무, 2004, pp. 63-98
7. 김상효, 동의신경정신과학, 서울: 행림출판사, 1980, pp. 41-65
8. 최용태 이수호, 정해침구학, 서울: 행림서원, 1974, pp. 459-500
9. 조동한 피영호역, 편작심서, 서울: 서원당, 2001, pp. 76-77
10. 박찬국, 臟象學, 서울: 성보사, 1992, pp. 15, 20, 21, 163, 203-204
11. 강효신, 동양의학개론, 서울: 고문사, 1973, pp. 47-67
12. 허준, 동의보감, 서울: 남산당, 1976
13. 우박, 의학정전, 서울: 성보사, 1986
14. 배오성 역, 석실비록, 서울: 서원당, 2000, pp. 92-93
15. 이시진, 본초강목, 서울: 고문사, 1975
16. 장개빈, 장씨유경, 서울: 서원당, 1976
17. 김정제, 진료요감,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74
18.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연구, 서울: 성보사, 1983, pp. 45-46
19. 박희준, 동양의학의 기원, 서울: 하남출판사, 1996
20. 장은암, 마원대, 영추경, 서울: 성보사, 1975

21. 유하간, 상한삼육서, 서울: 성보사, 1976
22. 조현영, 통속한의학원론, 서울: 을유문화사, 4286 (단기)
23. 이상인, 본초학, 서울: 의약사, 1975 p. 416
24. 이기영, 원효사상, 서울: 홍법원, 2003, pp. 127-276
25. 요코야마 코이치, 유식이란 무엇인가, 서울: 세계사, 1996, pp. 73-108
26. 사전편찬위원회, 불교학대사전, 서울: 홍법원, 2001, pp. 1000-1001
27. 남기현 역, 춘추번로, 서울: 자유문고, 2005 pp. 388-399
28. 지계근, 신경병리학,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1
29. 타노이 마사오, 몸의 구조, 서울: 서울문화사, 2001
30. 김충열, 노자강의, 서울: 예문서원, 2004
31. 허버트 벤슨 외, 과학명상법, 서울: 학지사, 2003
32. 설영상, 명당만들기, 서울: 물병자리, 1999
33. 야마모토 다이ске, 뇌와 기억의 수수께끼, 서울: 종문화사, 1997
34. 이중달, 병리학, 서울: 고려의학, 1990, p. 731
35. 채병운, 한방외과, 서울: 고문사, 1971
36. 길항식, 자율신경계, 서울: 고문사, 1991, pp. 21-32
37. 신문균, 신경해부학, 서울: 현문사. 1992, pp. 159, 204, 205, 220, 221
38. 박용찬, 도해뇌신경외과학, 서울: 제일의학, 1992, p. 32
39. 서울대의과대학, 내분비학,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3, pp. 50, 55
40. 김기석, 뇌, 서울: 성원사, 1989, p. 136
41. 강두희, 생리학, 서울: 신광출판사, 1988, pp. 18-1, 18-4, 18-5
42. 나카지마 외, 제3의 뇌, 서울: 과학과 예술, 1993
43. 오오키 고오스케, 마약 뇌 문명, 서울: 정신세계사, 4324(단기)
44. 정일천, 표면해부학, 서울: 의학출판사, 1985
45. F. 카프라,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서울: 범양사, 1993
46. G. 주커브, 춤추는 물리, 서울: 범양사, 1985
47. 박만상, 한국인의 두뇌개발, 서울: 지식산업사, 1992, pp. 117-140
48. 박일봉 역, 史記, 서울: 육문사, 1994
49. 송준만, 마음과 두뇌, 서울: 교문사, 1992
50. 임승국 역, 한단고기, 서울: 정신세계사, 1987
51. 최동환 해, 삼일신고, 서울: 지혜의 나무, 2000
52. 민성길, 최신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1987 pp. 76-82
53. 한국정신과학학회, 제1회 한국정신과학학술대회 논문집, 1994 pp. 74-108
54. 한국정신과학학회, 제2회 한국정신과학학술대회 논문집, 1995.4 pp. 84-99
55. 한국정신과학학회, 제3회 한국정신과학학술대회 논문집, 1995. pp. 31-44
56. 한국정신과학학회, 제5회 한국정신과학학술대회 논문집, 1996 pp. 93-94
57. 한국정신과학학회, 97추계학술대회논문집, 1997, pp. 167-171
58. 한국정신과학학회, 98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998 p. 4
59. 한국정신과학학회, 98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998 p. 88
60. 한국정신과학학회, 99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999 pp. 44-49
61. 한국정신과학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0 pp. 111-121
62. 한국정신과학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0 p. 120
63. 한국정신과학학회, 제15회 한국정신과학학술대회 논문집, 2001 p. 92
64. 한국정신과학학회, 제16회 한국정신과학학술대회 논문집, 2002 p. 57
65. 한국정신과학학회, 2003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3 pp. 1-32
66. 한국정신과학학회, 2004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4 pp. 10-11 pp. 19-43 pp. 131-148 pp. 149-158
67. 한국정신과학학회, 2005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5. p. 51